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20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25:1-5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1장(새 67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23번(새 42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양육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재난과 전쟁의 소식을 들으며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짐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에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임을 성령과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믿음과 사랑을 따라 모든 일상을 주님께 하듯이 대하게 하옵소서. 가장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마음과 지극히 적은 자를 더욱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된 거룩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각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존귀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마가복음 4:35-41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나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 봉 헌(offering) 361장(새 327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462장(새 432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일은 한마당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 친교 후 12:30분에 믿음속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망속으로 모입니다.
(속장 : 송현진, 속원 : 김연진, 김영희, 김희상, 석명선, 신성화/박인숙, 송금자, 유동진/이진옥, 이경자, 이진국/김성애, 정태욱, 허춘희)
4. 말씀묵상집 11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마태복음 18:21-35

우리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당사자와 직접 만나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합니다.

<말씀묵상> 마가복음 4:35-41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1.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5-38절) 나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2.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39-41절) 내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벧전 1:21)이 적용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결코 종교적 장신구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많은 신자에게 믿음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상징으로 전락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환난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주저앉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평소에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믿음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나 상황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크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의 믿음이 사용되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었음에도 정작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 그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사역의 결과나 헌신보다 진실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나에게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